

# 한문 속에 담긴 역사·인간관계·삶의 지혜 배우다

전주대, 훈장골 인성 아카데미 '청춘 악학대미' 성료

전주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온다라 지역 인문학센터(이하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와 한문교육과는 지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간 제3회 훈장골 인성 아카데미 '청춘 악학대미(樂學大美)'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장골 인성 아카데미는 연령별로 樂學(악학/중등반), 大美(대미/고등반), 靑春(청춘/성인반)으로 나눠 수강생을 모집했으며, 중고등반은 한문교육과 재학생이, 성인반은 한문교육과 및 한국어문학과 교수들이 강사로 나섰다.

교육은 한문 교육뿐만 아니라 한문 속에 담긴 역사, 인간관계, 삶의 지혜 등 인문학적 요소를 끌어내어 수강생들이 한문도 배우면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의에 참여한 중등반 수강생은 "교재가 제공되어 쉽게 배울 수 있었고,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매일 새로운 주제로 교육이 진행돼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며, "내년에는 고등반으로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장 백진우 교수는 "앞으로도 유익하고 폭넓은 인문강좌와 체험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 지역민과 함께하는 대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오는 12일부터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 수강생 및 '문.활.탄.문'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 HK+사업단 홈페이지 및



전주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와 한문교육과는 지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제3회 훈장골 인성 아카데미 '청춘 악학대미(樂學大美)'를 진행했다.

화재 활용가의 탄생' 참가자를 모집한다.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며, '문.활.탄.문' 화재 활용가의 탄생'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팀 공모전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 HK+사업단 홈페이지 및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063-220-320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공감대, 나의 삶, 나의 이야기', '소담소담' 등 다양한 인문 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익산소방서, 폭염 경보 발령으로 인한 비상근무체계 도입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도내에 폭염 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주말도 마다하지 않고 상시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전북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7월 30일 11시 이후부터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각 과(단), 센터는 인명 및 재산 피해 저감, 국민불편 최소화, 현장활동 안전관리 만전을 위해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익산소방서에서는 각 과장급을 포함한 비상근무조 8명을 주말, 공·휴일에 주·야간조를 편성 폭염119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상시 비상대기에 들어갔다. 더불어 온열응급환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폭염대응 장비 확보 및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뢰지도 강화, 무더위 쉼터의 탄력적 운영(열대야 시간까지 확대), 폭염대응 예비 출동대(펄블런스) 운영, 축산농가 및 에너지 취약계층 급수지원에 나서고 있다. /익산=정인천 기자

## 정읍소방서, '연이은 폭염 특보' 대책 회의 실시

정읍소방서(서장 김중수)는 전북지역에 폭염 경보가 연일 지속됨에 따라 5일 폭염 대비 대책회의를 실시했다. 연이은 폭염으로 인하여 전북 고창에서 열사병에 의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는 등 온열 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읍소방서는 폭염 대비 대책회의를 가졌다. 온열질환은 습기조차 어려운 무더운 날씨에 무리한 외부 활동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메스꺼움, 경련, 구토, 고열, 신경 및 정신이상 등을 나타내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환자 발견 즉시 빠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정읍소방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폭염구급대 및 펄블런스(구급차 출동 시 초기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소방펄프차량)를 지정하고 각 차량에는 얼음조끼, 얼음팩, 정제수금, 정맥주사 세트 등 다양한 폭염대비 장비를 비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무주군자율방재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전개

무주군지역자율방재단이 안전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5일 무주읍 반딧불시장에서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안전점검 생활화와 폭염에 따른 온열환자 사전예방을 위해 폭염대응 안내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냉동스카프 등을 나눠주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무주군 자율방재단 이종배 단장은 "다양해진 재난상황과 대규모 사고 발생에 따른 예방과 대응활동 참여를 활성화시켜 지역방재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무더위쉼터 전수점검, 재해우려지역 사전예찰 등을 통해 안전한 무주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임실경찰서, 현장 초등능력 강화 일제교육 실시

임실경찰서(서장 이동민)는 5일 운수과소 직원들을 상대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역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공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한 현장조치의 미연 방지를 위한 지역경찰 대상 순회 일제교육으로, 김해진 생활안전계장은 피해자 불안요인에 대한 공감과 인식부족, 신고내용 등의 하술한 확인, 현장에서 가 피해자 미분리 등 미흡 사례를 자료 삼아 교육하고, 임실경찰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신고내용(제보경위)에 집중, 주변 CCTV 등 증거물 확보, 신고현장 등 범행우려 지역을 직접 확인하는 등 세밀한 현장 조치로 제2차 피해를 예방해 주민에 신뢰와 지지 받는 현장대응력을 피력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군산소방서, 현장 응급처치 범위 확대 특별구급대 운영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사고 현장에서 진행했던 119 구급대원들의 현장 응급처치 범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특별구급대를 지정해 운영한다. 5일 소방서에 따르면 119 구급대원들이 응급 현장에서 할 수 없었던 심전도 측정이나 중증환자 진통제 투여, 심정지 환자 에피네프린 약물투여 등이 가능해져 사정 119안전센터 1개 팀(구급대원 3명)을 특별구급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구급대는 기존 1급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14개 항목의 응급처치 범위 외에 7가지 처치 항목을 새로 추가하여 특별구급대 교육을 받은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자격을 가진 구급대원은 심장질환 의심 환자에 대한 심전도 측정, 응급분당 시 앓을 절단을 할 수 있다. 또한 중증의상환자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환자에 에피네프린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 5개 항목을 더해져 심장질환 환자의 소생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김정훈 기자

## 남원경찰서, 사회적 약자 보호 정성치안 대토론회 열어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최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성치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찰과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역할 등이 논의하고, 남원경찰이 추진한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추진단의 주요내용을 공유하는 등 참석들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함현배 서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범죄에 쉽게 노출 될 수 있는 여성·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가까이 가는 정성치안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서부보훈지청, 창설 제58주년 기념식 개최

전북서부보훈지청은 5일 오전 10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제5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기념영상 시청, 업무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통해 보훈업무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됐다. 아울러 오후 1시에는 한국영양학회치료학회 이승수 전북지부장을 초청하여 청렴 힐링시네마를 개최하였으며, 청렴을 주제로 한 영화 관람 및 해설을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 및 보훈행정정의 공정성 확립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북서부보훈지청 관계자는 "국민의 마음속까지 따뜻함이 녹아 흐르는 따뜻한 보훈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원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